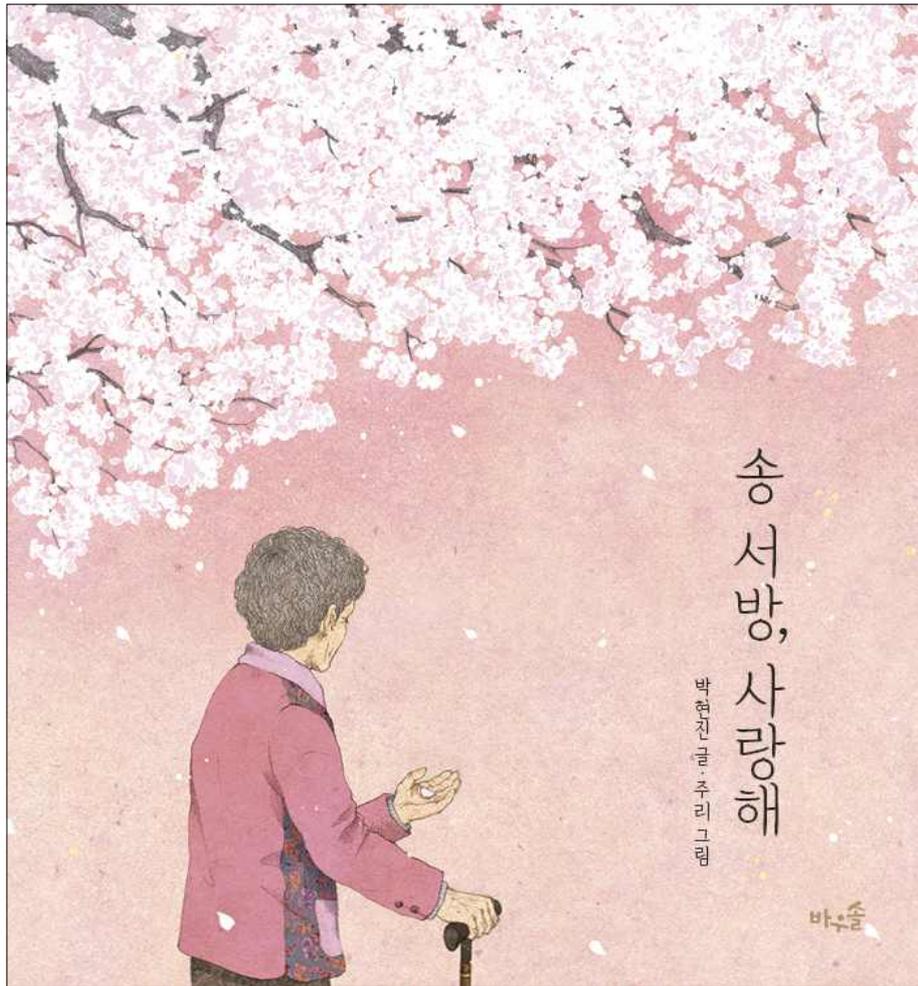


《송 서방, 사랑해》 독서지도안



기억을 잃어도 놓지 않는 마음이 있다!
사위를 향한 “사랑해” 속에 담긴, 엄마의 깊은 사랑을 전하는 그림책!

- 작가_ 박현진 글 | 주리 그림
- 출판사_ 풀과바람(바우솔)

본 독후 활동 자료는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정, 배포하실 수 없습니다.

1. 도서 소개

엄마의 마지막 말, 아버지의 무뚝뚝한 배려, 친구의 수줍은 위로... 뒤늦게 누군가의 사랑과 진심을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부끄럽고 어색하더라도 “사랑해.”라는 말이 오가는 순간, 말 한마디나 눈빛 하나로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는 순간, 우리 삶은 찬란하게 빛이 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기억, 기억이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죠.

《송 서방, 사랑해》는 치매로 점점 기억을 잃어가는 엄마와의 마지막 시간, 기억 속에 떠오르는 깊은 사랑을 잔잔하게 그려낸 그림책입니다. 민들레처럼 낮고 조용하게 피어난 사랑, 어느 겨울날 떠난 엄마를 향한 그리움, 그리고 딸의 뒤늦은 후회와 감사가 절제된 문장 속에 고요히 녹아 있습니다.

“사람은 아래를 보고 살아야 한다.”며 삶의 지혜를 전해 주고, 소소한 일상을 귀하게 여기시던 엄마. 그런 엄마가 점차 이름도, 가족도, 일상도 잊어갑니다. 어느 날, 엄마는 사위에게 수줍은 고백을 건넵니다. “송 서방, 사랑해.” 그 말은 단지 사위를 향한 애정이 아닌, 사랑받으며 살아가라는 딸을 위한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기억을 잃어도 ‘엄마’는 없어지지 않는 걸까요. 모든 기억이 지워져도, 딸에 대한 사랑만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딸을 향한 가장 깊고 조용한 사랑 이야기가 가슴 먹먹한 울림과 함께 짙은 여운을 선사합니다. 책을 보며 곁에 있는 소중한 이들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서로의 존재를 기억하고 보듬어가길 바랍니다.

2. 지도 개요

- 대상 : 초등 3~4학년, 초등 5~6학년
- 관련 교과 영역 : 3학년 1학기 국어 1. 생생하게 표현해요
5. 인물에게 마음을 전해요
4학년 1학기 국어 1. 깊이 있게 읽어요
5. 말과 글로 전하는 생각
5학년 1학기 국어 1. 대화와 공감
10. 주인공이 되어
6학년 1학기 국어 8. 인물의 삶을 찾아서

• 지도 요점 :

시간이 흐르면서 엄마의 기억은 점점 흐릿해집니다. 이름도, 나이도, 딸도, 지금이 언제인지도 잊은 채 엄마는 이제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하나씩 내려놓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을 잊은 듯 보였던 엄마의 입에서 뜻밖의 ‘사위의 이름’과 ‘사랑한다’는 말이 흘러나옵니다.

딸을 향한 가장 깊고 조용한 사랑. 이 책은 기억보다 오래 남는 마음, 사랑의 본질에 대해 말하는 그림책입니다. 글 저자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엄마와 딸, 가족과 기억에 관한 이야기들을 일상의 언어로 섬세하게 풀어냈습니다.

일상에서 부모님이나 형제, 친구에게서 사랑받고 있음을 느꼈던 적이 있나요? 친구들과 함께 따스한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3. 책 이해하기

(1) 엄마가 늘 말씀하신 말은 무엇인가요?



- ① 사람은 아래를 보고 살아야 한다.
- ② 차 조심하거라.
- ③ 매일 말 조심해라.
- ④ 싸우지 말고 살아라.



(2) 책 속 딸은, 엄마를 만날 때마다 반갑게 끌어안고 온 얼굴에 무엇을 퍼부었나요?



- ① 뺨크
- ② 미소
- ③ 뽀뽀
- ④ 눈물



(3) 다음 중 의사가 묻는 말에 엄마가 답하신 이름은 무엇인가요?



- ① 엄마 이름
- ② 큰아들 이름
- ③ 아빠 이름
- ④ 큰딸 이름



(4)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날, 함께한 무엇이 축복이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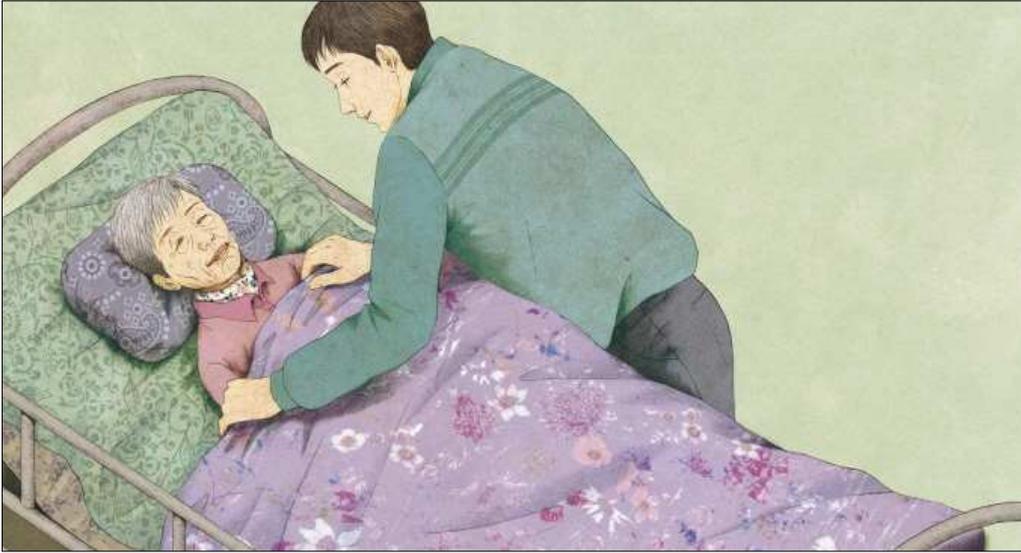


- ① 엄마랑 이야기한 것
- ② 엄마와 춤춘 것
- ③ 엄마의 사진을 찍은 것
- ④ 엄마 손 잡고 같이 잔 것



4. 확장활동

(1) 이 책 속에서 기억을 잃어가도 엄마는 엄마였고, 변함없이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기억이 사라져도, 마음은 끝까지 남았습니다. 가족 또는 친구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해 보세요!



(2) 우리의 인생에는 행복한 순간도 슬픈 순간도 있습니다. 잊고 싶은 순간마저도 기억하는 까닭은, 그 하나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만든 소중한 기억이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엄마가 내 엄마였던 모든 날이 그리운 것처럼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3)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넘어서, 누구나 품고 있는 ‘엄마’에 관한 감정과 기억을 고요한 그림 안에 깊이 새겨냈다는 점입니다. ‘엄마’에 관해 품고 있는 기억이 있다면, 이야기해 보세요!



[정답]

책 이해하기

(1) ① 사람은 아래를 보고 살아야 한다. | (2) ③ 뽀뽀 | (3) ② 큰아들 이름 | (4) ④ 엄마 손 잡고 같이 잔 것

확장활동

- (1) 엄마, 아빠 항상 고마워요.
동생아, 싸우지 말자. 등
- (2) 엄마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달걀프라이를 만들어 줄 때요.
비 오는 날, 학교 앞으로 한걸음에 달려온 아빠를 보았을 때요. 등
- (3) 운동회 날, 엄마를 속으로 외치던 내게 먼저 달려온 엄마의 모습을 잊지 못해요.
버스에서 혼자 내린 날 찾기 위해 한걸음에 달려오던 엄마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등